

좋은병원들

앞선의학, 좋은병원

2025 Autumn Vol.78



좋은문화병원 | 부산 (051)644-2002
좋은삼정병원 | 울산 (052)220-7500
좋은연인요양병원 | 밀양 (055)350-9988
좋은주례요양병원 | 부산 (051)325-0300

좋은삼선병원 | 부산 (051)322-0900
좋은선린병원 | 포항 (054)245-5000
좋은리버뷰요양병원 | 부산 (051)995-0900
좋은선린요양병원 | 포항 (054)245-6060

좋은강안병원 | 부산 (051)625-0900
좋은애인요양병원 | 부산 (051)520-7700
좋은부산요양병원 | 부산 (051)326-0900
좋은사랑요양병원 | 부산 (051)220-7000



좋은병원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좋은병원들
페이스북
팔로우 신청



좋은병원들
소식지
바로 보기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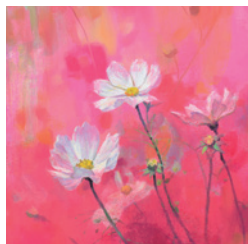
goodhospitals

스레드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유튜브

좋은병원들



표지

가을의 길목에서
작 백명숙

발행일 2025. 10. 1

발행인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자성

발행처 좋은문화병원, 좋은상선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정병원, 좋은선린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좋은연인요양병원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
좋은주례요양병원, 좋은선린요양병원
TEL. (051) 310-9419 FAX. (051) 316-9295
www.goodhospital.or.kr

편집장 좋은문화병원 내분비내과 인준협

편집위원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팀 이흥근
좋은문화병원 기획홍보팀 이윤희, 배지혜
좋은상선병원 기획홍보팀 유정화
좋은강안병원 기획홍보팀 정민호, 백선아
좋은삼정병원 기획관리팀 문석환
좋은선린병원 기획홍보팀 송육진
좋은애인요양병원 사회사업실 최혜빈
좋은연인요양병원 원무팀 조병재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원무팀 김재혁
좋은부산요양병원 행정부 김태곤
좋은선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김진경

편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 636-1215 www.ggad.co.kr



Colum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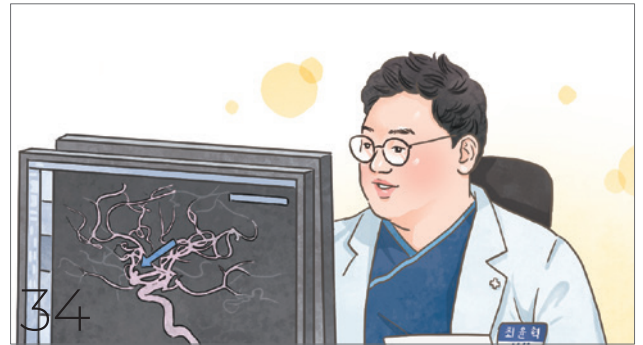
여는 이야기

- 04 베토벤, 톨스토이, 아나체크가 빛어낸 '크로이처 소나타'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사)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Issue Section

좋은병원들 이야기

- 06 ① 좋은병원들 스토리북 발간「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08 ② 좋은병원들 2025 정형외과 심포지엄
09 ③ 좋은병원들 첨단재생 의료기관 3곳 연속 지정 &
좋은병원들 구정회 회장 사상문화상 수상
10 ④ 좋은병원들 부산·경남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11 ⑤ 좋은병원들 폐렴·영상검사·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달성
12 ⑥ 좋은병원들 탁구대회
13 ⑦ 좋은병원들 시민건강박람회·국제의료관광컨벤션 동시 참가
14 ⑧ 좋은문화병원 개원 47주년
15 ⑨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 APAGE 2025 좌장과 연자로 초청
& 좋은문화병원 생후 13일, 990g 초극소 미숙아 태변성 장폐색증
수술 성공



Medical Section

건강칼럼

- 16 ① 주된 코막힘의 원인! 비중격 만곡증
최병권 좋은문화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 18 ② 족저근막염, 제대로 알고 예방하기
허태영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 과장
- 20 ③ 어깨 통증, 모두 오십견일까?
방진영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 과장

좋은언론정보

- 22 ① [국제신문] 항문없는 신생아,
수술 후에도 배변훈련 등 오랜 관리 필요
조용훈 좋은문화병원 외과 부장
- 24 ② [로이슈] 추간판 탈출증, 어떻게 이겨낼까?
이완석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척추센터 과장
- 26 ③ [부산일보]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칼슘 탓?
홍종철 좋은강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 28 ④ [경상일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규민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Culture Section

여행을 떠나요

- 30 알지만 애써 외면했던 섬, 소록도
그래서 너무 미안해

Hospital Section

- 34 감사의 편지
- 36 칭찬해~ 잘했어!
- 37 좋은병원들 유튜브
- 38 좋은병원들 뉴스
- 42 언론에 비친 좋은병원들
- 44 병원진료안내
- 45 독자퀴즈

베토벤 톨스토이 야나체크가 빚어낸 ‘크로이처 소나타’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음악과 문학은

인간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역경 속에서 창조된 예술은

우리에게 삶의 성찰과 희망을 선사한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종종 음악과 문학에서 위안을 얻는다. 한 편의 글이나 한 곡의 음악이 주는 깊은 울림은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다.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치유하는 힘을 발휘한다. 음악은 감정에 직접 다가가고, 문학은 타인의 삶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히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낸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은 그 자체로 치유의 증거가 된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청력 상실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불멸의 명곡들을 남겼다. 1802년 그는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를 통해 아픔과 절망감을 토로했지만, 이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며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음악은 슬픔과 좌절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결국 강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준다. 교향곡 5번 ‘운명’은 절망적인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교향곡 9번 ‘합창’은 모든 고통을 초월한 인류애와 환희를 노래한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소나타’는 1803년 작곡되어 베토벤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치고 당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지 브리지타



워와 초연했다. 이 곡은 1805년 재출판되면서 로돌프 크로이처에게 헌정되었다. 이 곡의 1악장은 격정적인 분노를 표출하듯 프레스토(presto)로 전개되어 극도의 긴장감과 열정을 담고 있어 듣는 이에게 평온함보다는 내면의 격렬한 감정을 끄집어낸다. 폭풍우를 치는 듯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격정적인 대결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평온한 주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4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2악장, 두 사람이 대화하듯 풀어나가는 다채로운 삶을 연상시킨다. 마지막 3악장은 다시 프레스토의 빠르기로 질주하는 리듬(발걸음)으로 마무리된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바로 이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 1악장에서 영감을 받아 1890년 동명의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를 발표했다. 소설 속 주인공 포즈드니세프는 그의 아내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크로이처 소나타를 듣고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혀 아내를 살해한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쓴 배경에는 결혼과 성에 대한 극단적인 도덕관념이 깔려 있다. 음악이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소설 속 내용은 언뜻 예술의 치유 능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음악이 인간의 가장 깊고 위험한 감정까지 건드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톨스토이는 베토벤의 음악을 빌려 당시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위선을 경고하고, 진정한 사랑과 순결의 의미를 역설했다. 독자들은 소설 속 인물의 파멸을 보며 삶의 어두운 면을 간접 체험하고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며, 예술이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톨스토이의 소설은 다시 한번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체코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는 이 소설에 깊은 감명을 받아 1923년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작곡했다. 야나체크의 음악 역시 소설 속 주인공의 광기 어린 질투와 아내의 절망을 격정적인 선율로 표현한다. 이 곡은 아름다움보다는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긴박한 리듬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적 표현은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진 불협적인 감정들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고통을 직시하고 해소하게 만든다. 비극적 서사를 음악으로 옮김으로써, 야나체크는 인간의 어두운 감정이 예술을 통해 정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처럼 음악과 문학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유산을 창조해 냈다.

베토벤은 청력 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역경 속에서도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의 선율을 선물했다. 톨스토이는 삶의 고뇌와 모순을 예술로 승화시켜 인류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었다. 야나체크는 이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인간 내면의 어두운 감정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역경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이들처럼,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음악의 오묘한 선율과 문학의 심오한 성찰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고,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좋은병원들 스토리북 발간

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2025년은 재단에 의미 있는 해입니다.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 좋은강안병원 개원 20주년, 그리고 좋은문화병원 설립 47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심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고자, 재단은 지난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목은 「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책에는 47년간의 여정과 직원들의 발자취, 그 속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겼습니다. 연보 속에는 1996년 문화병원 인턴수련병원 지정, 2004년 '좋은병원'으로의 명칭 통합, 2012년 신생아 10만 명 탄생 등 주요 사건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과 함께 펼쳐지는 기록은 한 편의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장기근속자입니다. 이직이 잦은 의료계에서 30년 이상 근속자가 27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짧은 소회가 기록돼 있으며, 재단의 모토인 “환자·직원·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 정신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설립자 구정회 회장의 부인이자 현재 종은문화병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속 원장의 인터뷰도 수록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의료계의 베일 속 인물’로 불려온 그녀는, 여전히 환자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자를 꿈꿔왔던 이야기는 그녀의 삶과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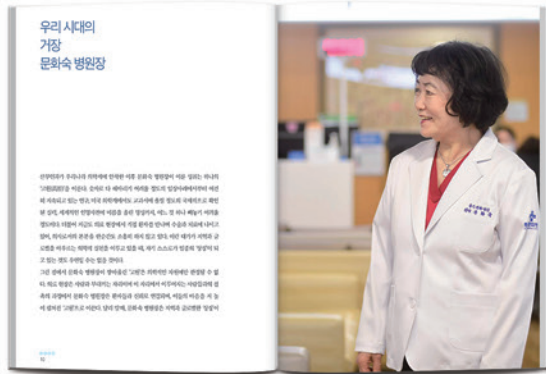
한편, 재단의 미래를 이끌 구자성 이사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곡점에 선 지금,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기록 출간을 기념해 종은강안병원 본관 1층과 종은삼선병원 본관 1층에서 특별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재단의 발자취와 주요 순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종은병원들의 뿌리는 1978년 구정회 정형외과와 문화속 산부인과입니다. 2025년 현재,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 등 모두 12개의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스토리북 출간 기념 전시



클릭 한 번으로 좋은 이야기를 읽는 방법

스토리북(PDF 파일) 다운로드 가이드

**QR코드를 스캔한 후 2025 STORY BOOK 옆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은병원들 2025 정형외과 심포지엄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어깨·척추·무릎·족부 최신 치료 경험 공유하며
의료 수준 향상 도모

좋은병원들 정형외과는 지난 8월 30일(토),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본관 그랜드볼룸에서 ‘2025 좋은병원들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는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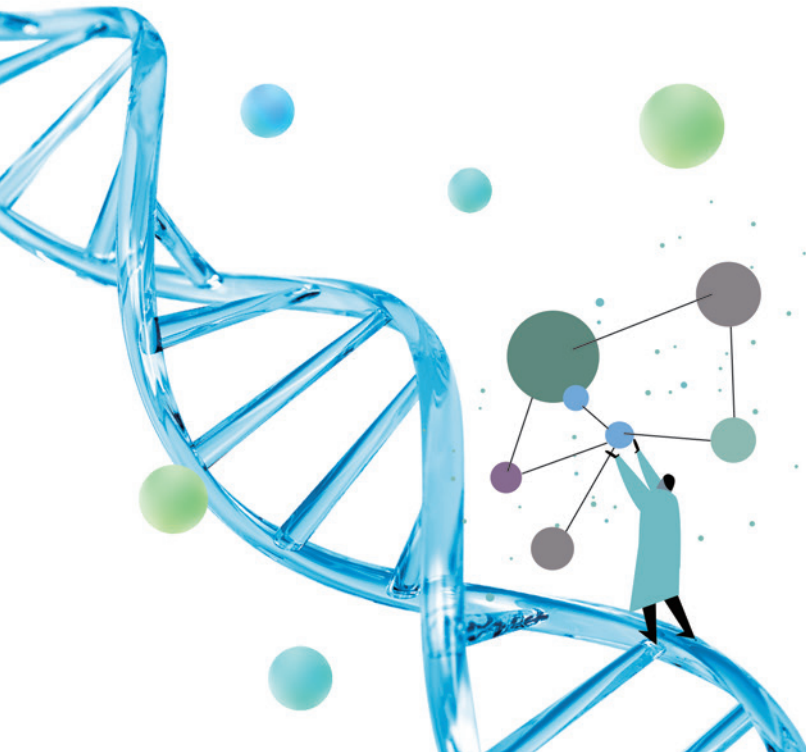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엄에는 재단 산하 병원의 의료진을 비롯해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정형외과 전문의 120여 명이 참석해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행사는 △어깨 △척추 △무릎 △족부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얻은 치료 경험과 사례 중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조형래 부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임상 현장에서 치료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병원들 첨단재생 의료기관 3곳 연속 지정



좋은병원들 산하 좋은문화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좋은강안병원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줄기세포 등 인체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손상부위 치료에 활용하는 차세대 의학기술입니다. 기존 법률상으로는 제한적인 임상 연구만 허용되었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 따라 실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련 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병원별로 구체적인 임상연구도 본격화됩니다.

좋은삼선병원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지방유래 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좋은문화병원은 자궁내유착 환자를 대상으로 지방 기질 혈관 분획물(SVF)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수행합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좋은병원들 네트워크 전체의 재생의료 역량을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로, 병원 간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과 난치성 질환 치료 전략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번에 좋은병원들 네트워크 병원들이 함께 지정됨으로써 단일기관이 아닌 통합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생医료를 접목한 환자 중심의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임상연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 구정회 회장 사상문화상 수상



좋은병원들 구정회 회장은 지난 9월 20일(토),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사상강변축제 개막식에서 **사상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 회장은 사상문화원장과 사상구청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축제는 청소년 예술제, 강변음악회, 다문화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개원 30주년을 맞은 좋은삼선병원은 축제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전문가 상담과 건강 체크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정회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병원들 부산·경남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좋은문화·삼선·강안·삼정병원 등 175개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돼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를 책임집니다. 부산은 19개, 울산은 4개, 경남은 7개 병원이 이번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급)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이 응급 등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응급의료, 전문 진료역량 등을 고루 갖춘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총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합니다.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진료의 지역 내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 인력 지원, 24시간 당직 체계 유지 등 실질

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합니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합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좋은병원들은 부산·울산지역에서 촘촘한 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중증 및 응급환자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진료를 완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GOOD MOONHWA

GOOD SAMSUN

GOOD GANG-AN

GOOD SAMJEONG



좋은병원들 폐렴·영상검사·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달성



폐렴 적정성 평가

좋은삼선·강안·삼정·선린병원
감염질환 대응역량 입증

좋은삼선·강안·삼정·선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2023년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9개 병원을 대상으로 △ 산소포화도 검사 △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 △ 항생제 투여 시점 △ 혈액·객담 검사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개 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검사 정확도와 초기 대응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고령층에서 위험이 큰 만큼, 이번 성과는 표준 진료지침 준수와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보여줍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의 기본을 지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좋은강안·선린병원
영상검사 질 인정받아

좋은강안·선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9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MRI·PET 등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지표는 △ 조영제 사용 전 환자평가 △ MRI 전 환자평가 △ 방사선 피폭 저감 프로그램 운영 △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률 △ PET 약품 적정 투여율 등입니다. 두 병원은 전 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기록하며 영상검사 분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허 현 병원장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좋은강안병원
유방암 치료 성과로 신뢰 입증

좋은강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주기 제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원발성 유방암으로 치료받은 성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좋은강안병원은 종합점수 94.43점으로 부울경 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개소한 유방센터는 원스톱 진료와 다학제 협진 체계를 통해 1,800례 이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환우회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창완 소장은 “환자 중심 치료 성과를 입증한 결과”라며 신뢰받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병원들 탁구대회



좋은병원들은 지난 6월 28일(토)~29일(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좋은병원들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은성의료재단이 민간으로서는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생활체육 탁구대회이며 실력에 따라 남녀 단체전·개인전 등 모두 22개 종목이 치러졌습니다. 이재훈(명지탁구클럽) 선수가 남자 개인전(E~2부)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011년 중국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이재훈 선수는 남자 개인전에서 2000년대 초반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신수희(신수희탁구클럽) 선수를 3대 2로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여자 엘리트 선수의 경우 개인전은 남자부에 출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산을 전국 최강인 이재훈과 신수희 선수의 결승전은 이번 대회의 최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 점 한 점 주고받을 때마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역시 선수 출신인 전선희(홍연호탁구클럽), 안경철(선수촌탁구클럽) 선수는 공동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남자 6부로 출전한 최윤영(돌고래탁구클럽) 선수는 “부산엔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적어 안타까웠는데 부산의 큰 병원인 좋은병원들이 민간으로는 처음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해 아주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를 후원한 구자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참가선수들의 밝은 에너지를 보니 이번 대회를 개최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생활체육 대회이지만 스포츠이니 꼭 이기시고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주말 가족들과 축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대회가 되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좋은병원들 시민건강박람회·국제의료관광컨벤션 동시 참가



좋은병원들은 지난 9월 5일(금)~6일(토),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 ‘2025 시민 건강박람회’와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동시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좋은문화병원은 올해 시민건강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1회 헬시 베이비 페스티벌’에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 상담과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부모와 젊은 부부들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헬시 베이비 페스티벌의 메인 협찬사인 구자성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큐티베이비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 축제의 의미를 더하였

습니다. 구 이사장은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아기들의 재롱에 마음껏 웃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다”며 “아기의 사랑스러움을 함께 발견하고 축하하는 따뜻한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병원들은 재단 차원에서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에도 공동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4개국 바이어 77명이 참가해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진료 경험과 특화 진료과, 국제 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해외 의료관광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문화병원 개원 47주년 “헌신과 감동, 함께한 47년”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7월 7일(월), 15층 대강당에서 개원 47주년을 맞아,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묵묵히 병원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장기 근속자 선생님들과 모범 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가 아낌없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문화속 병원장님의 기념사를 비롯해, 구정희 회장님, 김상갑 의무원장님, 구자성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지며 병원의 미래와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AI 뮤직비디오 상영은 큰 감동을 주었고, 포토존에서는 임직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간식이 제공되어 모두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기념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47년 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일시

좋은문화병원 개원 47주년 기념행사

7월 7일	개원기념식
7월 7일	개원 기념 병동 개원 수건 나눔행사
7월 7일	개원기념 직원대상 인생네컷 이벤트
7월 25일	본원 탄생아 초청 견학행사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 아시아·태평양 산부인과 내시경 및 최소침습수술학회 APAGE 2025 좌장과 연자로 초청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은 지난 9월 4일(목)~7일(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산부인과 내시경 및 최소침습수술학회(APAGE 2025)’의 초청을 받아 좌장과 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가임력 보존’ 세션의 좌장을 맡아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난소 자궁내막종에 대한 경질식 에탄올 경화술의 효과적인 시행: 재발과 AMH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방법’을 주제로 자궁내막종 치료 후 재발 방지 및 난소 기능(AMH) 보존을 위한 임상적 노하우를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좋은문화병원 산부인과 의료진도 이번 학술대회 무대에 함께 했습니다. 이윤순 센터장은 ‘자궁경부암에서 로봇과 복강경의 근치적 자궁절제술의 장기 종양학적 성적 비교 : 성향 점수 매칭 분석’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신 최소침습수술 기법의 안전성과 장기 성적을 근거 기반으로 제시하였고, 남경일 과장은 ‘난소에서 발생한 평활근종의 사례’를 주제로 드문 질환의 임상적 특징과 수술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생후 13일, 990g 초극소 미숙아 태변성 장폐색증 수술 성공 다학제 협력으로 소중한 생명 지켜



좋은문화병원 소아외과 조용훈 부장(왼쪽)과 위판혁 과장(오른쪽)

좋은문화병원은 출생 체중 990g의 초극소 미숙아에게서 발생한 태변성 장폐색증을 긴급 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아기는 임신 30주에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로, 생후 13일 만에 지역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소아외과 조용훈 부장이 집도하고, 신생아 전문의 위판혁 과장과 긴밀히 협력해 NICU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감염 및 이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용훈 부장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수술은 높은 집중력과 경험이 요구된다”며 “좋은문화병원은 소아외과와 신생아 전문의가 함께하는 다학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능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소아외과 분과 전문의는 47명에 불과하며, 2차 종합 병원에 상주하는 곳은 좋은문화병원이 유일합니다. 이번 수술은 지역 내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 역량과 NICU 협력 시스템이 결합된 성과로, 향후 지역 신생아 중증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ood Moonhwa

비중격은 코 중앙에서 콧구멍을 좌·우로 나누는 벽(뼈와 연골)을 말합니다. 이 벽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코 안의 공간이 비대칭을 이루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비중격 만곡증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2%의 유병률이 보고될 만큼 흔히 볼 수 있으며,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최 병 권

좋은문화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부비동염(축농증) 수술, 비중격 만곡증 수술, 비염 수술, 편도 수술
난청, 이명, 어지러움

진료 예약 및 상담 1577-1359

진료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진료
오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휴진

주된 코막힘의 원인! 비중격 만곡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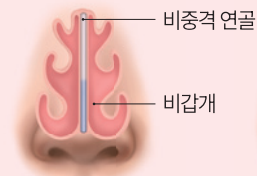
비염, 축농증과 더불어 이비인후과 3대 질환으로 꼽히는 비중격 만곡증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과 증상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가 있고, 외상으로 인해 코뼈와 연골이 변형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염이나 코 안의 물혹이 오랜 기간 압박을 가하면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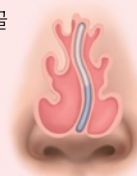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휘어진 쪽은 공간이 좁아져 숨쉬기가 어렵고, 반대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비갑개(코살)가 비대해져 결국 양쪽 모두 코막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코로 숨

비중격 만곡증의 종류



정상적인
비중격

비중격이 휘지 않고
곧은 경우



S형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이 상, 하로
같이 휘어져
S자 모양이 된 경우



C형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의 아래쪽이
C자 형으로
휘어진 경우

쉬기 힘들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구강 건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증상,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통이 동반되거나, 코 안 점액의 이동이 방해받아 부비동염(축농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비강 내 공간 불균형으로 인한 기류 변화가 잦은 코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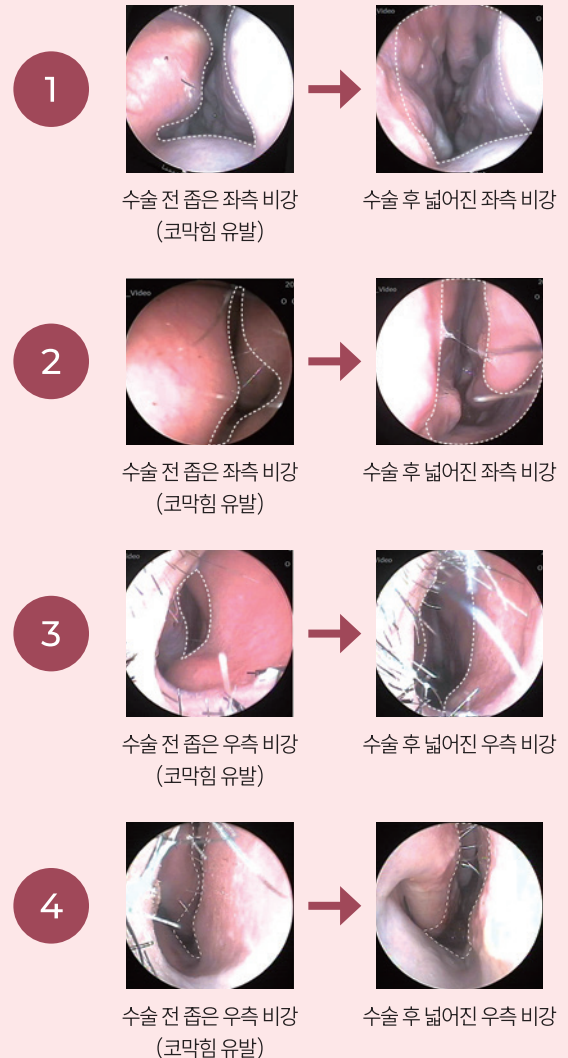
비중격 만곡증은 비염과 축농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코의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비갑개가 만성적으로 커져 해결되지 않는 코막힘과 비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성 비염이 부비동으로 번지면 축농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염 증상으로만 여기고 치료를 늦출 경우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코막힘 완화를 위해 스프레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약물성 비염이 생겨 오히려 코 점막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길항제 등 약물 치료와 비강 세척, 비강 내 스프레이 등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방법인 비중격 교정술입니다. 이는 휘어진 뼈나 연골을 절제하거나 재배치해 교정하는 수술로, 전신마취 또는 부분마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 코 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외부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비중격 만곡증과 함께 흔히 동반되는 비후성 비염의 경우,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해 커진 콧살의 부피를 줄여 코막힘 개선 효과를 높입니다.

수술 후에는 교정과 지혈을 위해 코 안에 패킹을 시행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압박으로 인해 환자가 큰 불편과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이비인후과는 점막 손상을 최소화해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 말랑해지는 소재의 패킹을 사용해 제거 시의 불편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수술 사례



비중격 만곡증은 단순히 코막힘에 그치지 않고 수면, 집중력,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좋은문화병원 이비인후과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로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ood Samsun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9월 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산책이나 러닝을 시작하고, 등산을 즐기며 활발히 야외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뒤꿈치와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어납니다. 흔히 “첫발을 디딜 때 유난히 아프다”고 표현하는 ‘족저근막염’ 때문입니다.



허태영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관절내시경 (무릎, 어깨), 인공 관절 (무릎, 어깨), 관절염
상하지 골절 및 외상, 골다공증

진료 예약 및 상담 051-322-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진료	진료	수술	수술	순번
오후	수술	진료	진료	수술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저근막염, 제대로 알고 예방하기

가을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에 주의하세요

족저근막은 발바닥 아치를 지지하는 두꺼운 섬유띠 구조물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혹은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걸음을 시작할 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계속 걷다 보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지만, 다시 휴식을 취한 후 움직일 때 비슷한 통증이 반복됩니다. 주로 40~60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달리기나 걷기를 무리하게 즐기는 분, 신발을 최근에 바꾼 분,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그렇다면 왜 이런 통증이 생길까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이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미세 파열이 생기고,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충격입니다. 갑작스럽게 장시간 걷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장시간 서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딱딱한 환경입니다. 쿠션이 없는 신발, 단단한 바닥에서의 활동, 배구나 에어로빅처럼 바닥 충격이 큰 운동, 하이힐 착용이나 과체중도 원인이 됩니다. 셋째, 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치가 거의 없는 평발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오목발을 가진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해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스트레칭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특히 아침 첫발을 내딛을 때 아픈 이유는, 발을 쓰지 않는 동안 족저근막이 수축하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뻣뻣한 근막이 첫 보행 순간 갑자기 늘어나면서 염증 부위에 긴장이 가해지고, 그 결과 미세 손상이 반복되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와 예방의 핵심은 바로 이 근막을 ‘풀어주는 것’, 즉 스트레칭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수술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자의 90% 이상이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호전됩니다. 우선 원인을 교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줄이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며, 필요 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발이나 요족 같은 발 구조 문제는 맞춤형 깔창이나 보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 혹은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 전, 발가락과 발바닥을 잡아당겨 근막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하루 3~5세트, 한 세트에 10초씩 10회를 반복하면 효과적이며, 이 간단한 생활습관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가 빠르게 호전됩니다.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약물치료나 보조기, 체외충격파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되며, 6주 이상 스트레칭을 했음에도 호전이 없다면 족저근막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

주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미세 손상을 유도해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으로 발바닥 지방층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여러 방법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극히 드물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면 대부분 병력 청취와 진찰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첫발 때 아프다”, “걸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전형적인 증상과 활동·신발·체중의 변화만 확인해도 족저근막염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음파나 MRI 검사는 다른 원인을 감별해야 할 때에만 시행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스트레칭 방법을 보여주고 교육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최근 러닝 인구가 늘어나면서 족저근막염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닝은 비용이 적게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반드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러닝 전후에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이미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신발이나 체중,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건강에 있어 최고의 보약입니다. 족저근막염을 잘 예방하고 치료해 통증 없는 보행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Good Gang-an

40~50대 이후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를 흔히 ‘오십견’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회전근개 파열 등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질환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진영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어깨 및 팔꿈치 관절 특화 치료(고난이도 어깨, 팔꿈치 수술 및 최소 침습 관절내시경 수술, 어깨 관절 인공관절수술, 근이전술 등) 상지 일반 질환 및 스포츠 손상, 골절 및 외상

진료 예약 및 상담 051-625-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수술	진료	수술	진료	수술	격주
오후	수술	진료	수술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 모두 오십견일까?

‘오십견’만 생각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접어들면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점차 불편해지면서 “오십견이 온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제가 오십견인 것 같아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오십견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은 오십견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질환 모두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하지만,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십견은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며,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점차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5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해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40대 중반부터 60대 이상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오십견의 주요 특징은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 밤에 심해지는 야간통, 전 방향의 운동 제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옷을 입거나 벗기, 머리 빗기 등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지며, 통증이 점차 심해져 수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 오십견의 발생 위험이 더 높고, 증상이 심하며 회복도 더딥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은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사용, 외상, 그리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점차 찢어지다가 심하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 파열로 진행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특징은 특정 방향에서의 통증, 어깨뿐 아니라 팔 아래쪽까지 방사되는 통증, 물건을 들 때 힘이 빠지는 느낌, 팔을 움직일 때 나는 ‘뚝’ 소리와 불안정감 등입니다. 방치할 경우 파열이 점점 커져 수술이 복잡해지고 어깨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아래 표 참고) 두 질환 모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지고 통증이 심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는 단순 봉합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파열이 커지면 근육이 위축되고 지방으로 변성되어 수술로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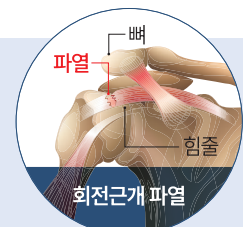
오십견의 치료는 약물치료, 통증 조절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관절내시경을 통한 유착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무엇보다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재활운동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작은 파열의 경우 약물치료와 주사치료가 가능하지만, 파열이 크면 관절내시경 봉합술, 힘줄 이식술,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어깨 스트레칭, 무리한 사용을 피하는 것, 통증 발생 시 조기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60세 여성 A씨는 몇 달 전부터 어깨가 아파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며 파스만 붙이며 버티셨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기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았을 때는 회전근개가 크게 파열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초기 통증이 시작될 때 바로 병원을 찾았다면 작은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깨 통증은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은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깨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조기 치료를 통해 평생 건강한 어깨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강안병원 어깨·팔꿈치 클리닉은 환자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와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발생 원인	관절낭의 염증 및 유착	힘줄의 손상 및 파열
통증 양상	서서히 통증이 심해짐	특정 동작 이후 갑작스러운 통증 발생이 많음
야간 통증	매우 흔함	나타날 수 있음
근력 약화	드물음	흔히 나타남

좋은문화병원

국제신문

바로가기



14면

외과 조용훈 부장

2025년 8월 12일(화)

항문없는 신생아

수술 후에도 배변훈련 등 오랜 관리 필요

항문폐쇄증 증상과 치료

- ☑ 항문이 아예 없이 태어난 고위형
- ☑ 3단계의 까다로운 수술로 치료
- ☑ 추적관리도 최대 20년까지 걸려



좋은문화병원 소아외과 조용훈 부장이 항문폐쇄증 수술 후 배변 조절 기능 평가를 위해 환아를 추적 진료하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져 의료진의 전반적인 검사를 받는다. 이때 산전 진찰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신체적 문제점이 뒤늦게 보이기도 한다. 우선 확인하는 부분은 눈·코·입·귀·손가락·발가락이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항문 존재 여부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항문이 없는 경우를 항문폐쇄증(쇄항)이라고 한다. 항문폐쇄증은 선천성 항문·직장 기형의 한

형태로, 신생아 5,000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 남아(58%)가 여아(42%)보다 더 확률이 높다. 항문이 막혀 있으면 태변을 배출하지 못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좋은문화병원 소아외과 조용훈 부장의 도움말로 소아 항문폐쇄증에 관해 알아본다.

■ 고위형, 항문 만드는 어려운 수술

최근 출생 직후 항문이 없는 신생아가 좋은문화병원으로 전원됐다. 항문폐쇄증은 흔히 척추, 신장 등 다른 장기와 함께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각종 검사 결과 동반 기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문폐쇄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괄약근 형성이 모두 정상인 저위형(항문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곳에 있는 예)은 회음부를 통해 항문 모양만 바꿔주는 항문성형술이라는 간단한 수술을 하면 거의 정상적인 항문 기능을 갖게 된다. 남아는 생후 바로, 여아는 3개월 전후로 하면 된다.

이와 달리 항문이 아예 없는 고위형은 여러 단계로 나눠 수술을 시행한다. 궁극적으로는 없는 항문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다. 조용훈 부장은 “고위형 수술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고 그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야 하므로 어렵고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고위형 치료는 보통 3단계 수술로 진행된다. 우선 출생 직후 장루(대변주머니) 설치 수술을 한다. 태변 배설이 불가능하므로 배변 우회를 위해 필요하다. 체중이 5kg 정도 넘어서면 2차 수술로 새로운 항문을 만들어주는 ‘항문·직장성형술(Pena 수술)’을 한다. 이후 항문 확장(Hegar 확장술)을 시도한다. 새로운 항문이 조금씩 넓어져 일정 크기로 유지되면 3차 수술로 대변주머니를 제거하고 모든 장을 연결하는 ‘장루복원술’로 마무리한다. 단계별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데, 보통 6~8개월 걸린다.

고위형 수술은 무엇보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어서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하다. 소아외과 뿐만 아니라 신생아·소아과와 마취과 의료진, 수술실 팀, 신생아·소아간호사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 배변훈련, 저위형도 6~7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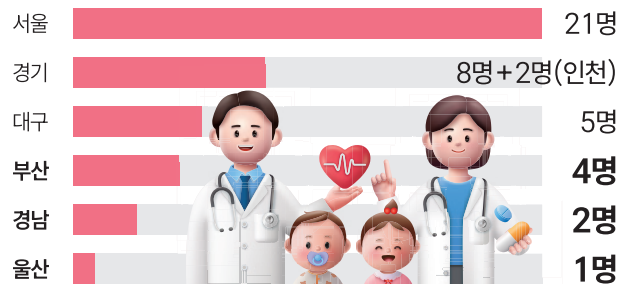
수술 후 추적 관리도 필요하다. 수술 후 외래 추적 진료를 시행하며 스스로 변의감을 느끼며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변비나 변실금을 동반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의 평가를 한다.

고위형은 단순히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변을 조절하는 기능도

없이 태어난다. 따라서 수술 후 그냥 두면 100% 대변을 가리는 기능을 배울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절한 훈련을 시켜 변을 가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저위형은 보통 6~7년, 고위형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걸리기도 한다. 배변 활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적 관리는 중단한다.

소아의 항문·직장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선천성 기형에 대한 수술 및 처치에서 중요한 점은 소아외과 의료진과 환자 부모와의 상호신뢰 관계, 즉 라포(rapport) 형성이 핵심이다. 이 점을 조금이라도 간과하면 부모와 의료진 간 긴밀함 부족으로 치료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 지역별 분포



출처 : 대한소아외과학회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술임에도 출생아 급감으로 의료 현장에선 기피 현상이 벌어지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도 소아외과 전문의가 갈수록 줄어들어 ‘씨가 마른다’. ‘멸종위기종’이라는 얘기마저 들린다. 치료 받을 환자 자체가 급감하니 병원에서는 ‘돈’ 안 되는 소아외과 전문의의 투입을 꺼린다. 게다가 소아외과 의사가 일반외과 진료와 시술을 많이 하는 까닭에 그 정체성도 위협받는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턱없이 적어 24시간 ‘콜’을 받아야 하는 ‘극한직업’이기도 하다. 대한소아외과학회에 의하면 소아외과 분과전문의는 현재 정회원 기준으로 59명. 부산·울산·경남에는 총 7명(부산 4, 경남 2, 울산 1)이 있다. 조용훈 부장은 “좋은문화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소아 항문 폐쇄증 수술을 시행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라고 말했다.

좋은삼선병원

로이슈

바로가기



정형외과·척추센터 이완석 과장

2025년 6월 12일(목)

척추 건강에 경고등! 추간판 탈출증, 어떻게 이겨낼까?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5개의 천추가 유합돼 이루는 천골 그리고 4개의 미추로 이루어지며, 경추부터 천골 사이에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섬유륜'이라고 불리는 질긴 결합조직에 싸여있다.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종종 추간판 내의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추간판 탈출증,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척추 디스크'라고 부른다.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흔히 엉덩이, 허벅지, 장딴지, 발 등의 부위에 방사통, 저린감, 감각이상 혹은 근력저하를 유발한다. 감각이상이나 근력저하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무섭고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80~90%의 환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추간판 탈출증은 하지 직거상 검사 같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와 같은 검사상 탈출된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하지만 X-ray 상에서도 간접적인 소견이 관찰될 수 있고, 이에 의존해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해도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흔히 단기간의 휴식,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신경차단술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들은 섬유유착을 뚫고 나온 수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급성기에 심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 약물치료를 장기간 시행할 경우 위장관, 간혹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흔히 ‘뼈 주사’로 알려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경우 스테로이드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투여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수개월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장기간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시행하고 드물게 대소변 장애와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하에 현미경이나 내시경적 수술 1시간 정도에 걸쳐 시행하며, 국소마취하에 주사약으로 디스크를 녹이기 위한 시술을 시도할 수 있다. 수술의 성공률은 90% 정도로 매우 높지만 5~7%에서 재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척추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스크 탈출 부위에 따른 증상



척추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바닥 생활을 피하고 의자에 앉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걷기, 조깅 등도 도움이 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신전운동이 도움이 되며 윗몸일으키기와 같이 허리의 굴곡 신전이 큰 운동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수핵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은 해부학적으로 회전운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허리를 회전시키는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필자도 전공의 시절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척추관의 50%를 막는 보기 드물 정도로 큰 크기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고, 이 경험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세부전공을 선택할 때 척추외과를 선택하게 한 계기가 됐다. 당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지만 3일차부터 호전되기 시작해 5일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했고 매년 1~2회 정도 간헐적으로 하지 방사통이 반복되기는 하나 2~3일간의 소염진통제 복용만으로 통증이 호전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 무섭게 느껴질수도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척추위생 교정이 이루어진다면 통증없는 허리를 만들 어갈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의 예방 방법

- ✓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
- ✓ **규칙적인 운동 & 올바른 자세** 등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 ✓ 수영·걷기·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 추천
- ✓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운동** 병행
- ✓ **적정 체중** 유지
- ✓ **빠의 칼슘 감소시키는 담배 끊기**



좋은강안병원

부산일보

바로가기



18면

이비인후과 홍종철 과장

2025년 7월 1일(화)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칼슘 탓?

부갑상샘기능항진증

- ☑ 고칼슘혈증으로 조기발견 늘어
- ☑ 관절통, 뼈통증, 잦은 소변 증상
- ☑ 원발성엔 수술이 가장 효과적
- ☑ 무리한 단식·고단백 식사 피해야
- ☑ 완경 이후엔 칼슘 등 복용 주의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 홍종철(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장은 “이유 모를 증상이 계속된다면 노화나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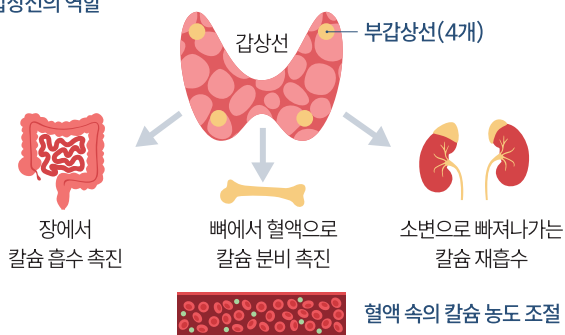
몸이 이유 없이 피로하고, 뼈가 쑤시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건강 검진에서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부갑상샘 기능항진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 홍종철(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장과 함께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알아본다.

50대 이상 여성 발병 가능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갑상선 뒤쪽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 기관인 부갑상샘에서 부갑상샘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한다. 평균 크기는 2~5mm 정도로 아주 작은 기관이다. 이 호르몬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분비 되면 혈액 속 칼슘 수치가 높아지고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검진 보편화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은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명확한 증상이 있는 환자만 진단됐지만, 고칼슘혈증이 발견되면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홍 과장은 “완경 이후 뼈 보호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골흡수가 증가되면서 부갑상샘 기능에 영향을 끼쳐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상은 다양하다. 피로감이나 무기력함,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식욕은 정상인데도 체중이 줄거나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통이나 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골다공증이 악화되거나 반복적인 골절이 나타나기도 하며, 신장결석이나 잦은 소변, 탈수 증상, 변비나 복부 불쾌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홍 과장은 “여러 장기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퍼져 있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거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부갑상선의 역할



■ 원인에 따라 치료법 달라져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부갑상샘에 생긴 양성 종양(선종)이다. 원발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이라고 불리며, 전체 환자의 약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만성 신부전을 앓거나 투석 중인 경우 속발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과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갑상샘이 자율적으로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되면 삼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이 있다. 당뇨병, 비타민D 결핍, 고령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혈청 칼슘 농도가 낮아져 반사적

으로 부갑상샘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면서 발병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치료도 달라진다. 원발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경우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문제가 되는 부갑상샘을 제거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며, 다양한 증상도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홍 과장은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에서는 숙련된 갑상선두경부외과 전문의가 최소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해 흉터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속발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갑상샘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삼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 또한 심한 경우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 세스타미비 스캔 널리 활용

최근에는 수술 전 부갑상샘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영상 검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스타미비 스캔’이다. 세스타미비 스캔은 방사성의약품을 몸에 소량 주사한 뒤 감마 카메라로 부갑상샘의 활동 상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병든 부갑상샘은 정상보다 활발하게 작용해 약물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상 부위를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외과의는 수술 전 병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최소한의 절개로 불필요한 조직 손상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부갑상샘 종양 수술 후 암으로 판명되면 수술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명확한 방법은 없지만, 칼슘과 비타민D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무리한 단식이나 고단백식 중심의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 내 칼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완경 이후 여성에게는 칼슘과 비타민 D 복용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진단받으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홍 과장은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질환”이라며 “피로와 우울감 등 이유 모를 증상이 계속 된다면 단순한 노화나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삼정병원

경상일보

바로가기



11면

호흡기내과 이규민 과장

2025년 8월 27일(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침으로 잠 못 든다면
금연만이 '살 길'



중년 이후 흡연자에게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볼 만한 병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업적 유해가스 노출, 실내외 공기 오염, 폐 감염 등에 의해 기관지와 폐 실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병이다.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 가래, 그리고 숨이 차는 증세가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좋은삼정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규민 과장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규민 과장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을 위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것을 조언했다.

■ ‘흡연’이 주 원인…폐기능 검사로 진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COPD)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199,119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유병자 중 극히 일부분이다. 만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만 65세 이상은 25.6%에 달하지만, 실제 유병자 중 진단받은 환자는 약 2.5%에 그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OPD를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로 꼽고 있지만, 국내 4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은 질환명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COPD는 기도와 폐에 만성 염증이 생겨 폐 조직이 점차 파괴되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주요 원인은 흡연이며, 대기오염·호흡기 감염 등 환경적 요인과 유전·연령·성별 등 숙주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흡연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간접흡연 역시 COPD를 초래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의 노출은 폐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한 날씨가 겹치면 위험은 배가 된다.

COPD의 초기 신호는 단순하다. 기침, 가래, 그리고 가벼운 숨참이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변화와 비슷해 병원 방문을 주저하거나 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평지를 조금 빨리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된다. 심한 경우 세수나 옷 갈아입기 같은 가벼운 집안일조차 힘에 부친다.

밤에도 증상은 이어질 수 있다. 호흡이 힘들어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기침이 심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전신 피로가 쌓이고, 결국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된다.

COPD 진단의 핵심은 폐 기능 검사다. 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힘껏 내쉬어 나오는 공기의 양과 속도를 측정해 기도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다. 여기에 흉부 X선이나 CT를 통해 폐포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규민 과장은 “증상이 경미해도 폐 기능 검사를 받으면 조기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며 “특히 40세 이상 흡연 경험자나 직업적으로 먼지·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실내 환기 자주·규칙적 운동 필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비약물 요법으로는 금연이 대표적이다.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연을 하면 정상적인 폐 기능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나 폐기능 저하 속도를 정상인의 수준까지 늦출 수 있다.

이규민 과장은 “금연은 COPD 예방과 치료의 첫 걸음이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막기 어렵다”며 금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약물 요법으로는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흡입제와 객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진해 거담제가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된 치료는 흡입제다. 흡입제는 폐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염증을 조절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러나 만성 폐쇄성 환자들의 대부분 고령이고 흡입력이 약하기 때문에 흡입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흡입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에 맞춰서 흡입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예방 접종이다. 매년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며, 폐렴 구균 백신 접종을 통해 폐렴을 예방해야 한다. 정상인과 다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꼭 필요하다.

COPD 환자는 생활 관리가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호흡기 감염은 COPD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또한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해야한다. 가습기를 사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이 한결 편해진다. 체력 유지를 위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이규민 과장은 “COPD로 한 번 손상된 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기 발견과 관리로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말고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알지만 애써 외면했던 섬, 소록도 그래서 너무 미안해

이흥곤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본부장

hung0322@hanmail.net

나로우주센터로 유명한 전남 고흥군에는 알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애써 외면했던 ‘금단의 땅’이 있다. 문둥병, 나병 심지어 천형(天刑)이라 불린 한센병으로 우리 뇌리에 각인된 소록도 이야기다. 섬의 관문 격인 녹동항에서 바라본 소록도는 한눈에 봐도 400m 정도의 지척거리다. 뱃길로 5분 거리였다. 지금은 섬보다 눈길에 먼저 가는 게 녹동항과 섬을 잇는, 2009년 개통된 1,160m의 연륙교인 소록대교다. 소록도는 편견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하늘에서 본 소록도 전경. 오른쪽 고흥반도 북동향에서 섬을 잇는 소록대교가 보인다. 섬 왼쪽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이다. 사진제공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박물관



“왜 하필 소록도였나요?” 동행한 김재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렇게 답했다. “4계절이 온화하고, 육지와 멀지 않고, 무엇보다 물이 풍부해요. 한센인 집단 수용소로 찾던 일제의 조건에 딱 맞는 곳이었죠.” 어린 사슴의 모습을 닮았다는 소록도(小鹿島)에 한센인 병원이 생긴 건 일제강점기인 1916년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이다.

한때 환자가 6,000명이 넘었다. 지금은 입원환자를 제외하고 370여 명이 주민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돼 일종의 단순 피부 질환으로 남았지만, 그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첫 발걸음은 가볍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송림 아래 보행 택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마냥 걷고 싶은 길이다. 하지만 한센인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아픈 현장이 곳곳에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몇 걸음 못 가서다.

송림 아래 ‘수탄장(愁嘆場)’이라는 안내판이 시선을 붙잡는다. ‘탄식의 장소’라는 뜻의 수탄장은 한센병 부모와 자녀가 만나던 장소였다. 자녀가 태어나면 감염을 우려해 보육소에 수용된 후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만났다. 하지만 길 양옆으로 늘어선 채 일정 거리를 두고 그저 눈으로만 얼굴을 봤을 뿐이다. 수탄장은 분명 시대적 비극이었다.

송림길의 끝자락 즈음, ‘애한의 추모비’를 만난다. 해방 직후 자치권을 요구하던 한센인 84명이 죽창 등으로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참사 56년 만인 2001년 유골을 발굴, 이듬해 참사 현장인 이곳에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상징적인 비가 세워졌다.



아름다운 송림길 우측 입구 수탄장 팻말이 서 있다.



하늘에서 본 중앙공원. 사진 한가운데 보이는 조형물이 구라탑이다.

‘제비선창’도 빼놓을 수 없는 차별의 흔적이다. 추모비 뒤편, 소록대교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물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점이다. 한센 인들을 실어 나르던 제비호가 섬에 도착하던 지점이다. 당시 직원들은 산 너머 반대쪽인 북관사선창을 이용했다. 제비선창은 오랫동안 지속되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앞서 폐쇄됐다. 그 사연이 아이러니하다. 교황의 방한 일정에 소록도가 포함되자 섬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당시 미국 NBC방송은 소록도를 취재하다 제비선창을 한센인에 대한 차별의 증거로 지적했다. 소록도병원장은 보도 후 즉시 제비선창을 폐쇄했다. 한센인과 일반 직원이 같은 부두, 한 배를 이용하게 되자 한센인들은 이를 ‘교황님의 선물’이라 기뻐했다고 전해온다.

| 감금실·검시실·중앙공원…불편함의 연속 |

불편한 심기는 국립소록도병원 근처 감금실과 검시실에 들어서면 분노로 돌변한다. 2m 높이의 빗바랜 붉은벽돌 건물로, 감금실은 바깥에서 영락없는 교도소다. 양쪽에 건물을 나란히 짓고 감시 편의를 위해 두 건물 사이를 회랑으로 연결했다. 병원의 부당한 처우와 박해에 저항한 환자를 가둬 강제로 정관수술을 자행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서 /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

있노라(중략).’ 벽에 걸린 이동이라는 환자의 시 ‘단종대’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검시실은 두 칸으로 나뉘어 있다. 입구의 넓은 방은 인체해부대가 놓여 있는 해부실, 안쪽은 검시 전 사망자 유해를 보관하는 영안실로 사용됐다. 당시 사망자는 무조건 시신 해부를 마쳐야 간단한 장례를 거쳐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됐다. 이 때문에 한센인들은 의사들이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죽기를 원했다. 해부 절차 없이 화장되기 때문이다. 소록도 한센인의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다.

섬의 한가운데 위치한 6,000여 평의 중앙공원은 아주 아름답다. 황금편백 향나무 송솔 종려 등 하나같이 정갈하다. 4대 원장 스오 마사스가 1936년부터 3년 4개월 동안 손이 불편한 한센인의 고혈을 짜내 인근 섬의 기암괴석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들여온 남방 수목들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보리피리 불며 / 봄 언덕 / 고향 그리워 / 피-르닐니리’로 시작하는 한센병 시인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가 음각된 반석 시비가 눈길을 끈다. 이불 크기의 이 반석은 ‘메도 죽고 놓아도 죽는 바위’로 불린다. 이 반석을 옮길 때 일본인들의 채찍이 얼마나 모질던지 목도를 메면 허리가 부러져 죽고, 놓으면 맞아서 죽는다고 해서 명명됐다.

결국 약탈했던 스오 원장은 1942년 한센인 이춘상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2022년 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돼 보리피리 시비 인근에 ‘이춘상 6.20 의거 기념비’가 세워졌다.



한센병 시인 한하운의 시 '보리파리'가 새겨진 시비.

고귀한 인류애도 간직한 섬

소록도에는 어두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귀한 인류애도 남아 있다. 간호사 마리안느 스토틀거와 마가렛 피사렉이 바로 그들이다. 중앙 공원에는 그들의 공적비가 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1962년과 1966년 각각 소록도를 찾았다. 두 간호사는 여기서 40여 년간 편견과 차별 때문에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한센인들을 위해 온정성을 다 쏟았다. 한국인 의사들도 만지기 꺼린 피고름을 맨 손으로 짜주며 한센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단 한 톨도 받지 않고 40여 년을 봉사해 온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자신들의 몸이 늙어 환자들을 돌보기 힘들게 되자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주위를 숙연케 했다. 2005년 11월 22일 '소록도에 부담을 주기 싫다'라는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20대 청춘으로 왔다가 70대 할머니가 돼 떠나는 두 간호사의 짐은 올 때 갖고 온 낡은 가방뿐이었다.

이후 국내에선 2017년 두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제작됐고, 이듬해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슬프게도 치매를 앓던 마가렛은 2023년 88세의 나이로 선종했고, 한 살 많은 마리안느는 현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다.

하나이 젠키치 2대 원장 창덕비도 있다. 그는 1921년 부임한 후 보통 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식 생활양식을 폐지했다. 가족과의 서신, 면회,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허용하는 등 한센인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었다. 한센인들은 그가 떠난 1929년 고마움의 표시로 창덕비를 세웠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 청산 일환으로 비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몰래 묻었다가 1961년 다시 발굴해 중앙공원 입구에 세웠다가 원래 장소인 자혜의원 옆으로 옮겼다.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의미의 구라탑(救癩塔)은 의미 있는 중앙 공원의 상징물이다. 완치된 한센인 환자들의 사회복귀 문제가 대두 되자 새로운 정착지 조성을 위해 14대 조창원 원장이 한센인들과 함께 오마도 간척공사를 시작했다. 이때 대학생 133명(외국인 16명 포함)이 국제워크캠프 단원으로 참여했다. 조 원장은 공사에 참여한 한센인들과 캠프 단원들의 봉사 및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탑을 1963년 세웠다. 미카엘 대천사가 한센군을 박멸하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이제 소록도는 한센인들만의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찾아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016년 5월 병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됐다.



따뜻한 배려로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신경외과 최윤혁 과장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저에게 이번 치료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 삶에 큰 의미를 남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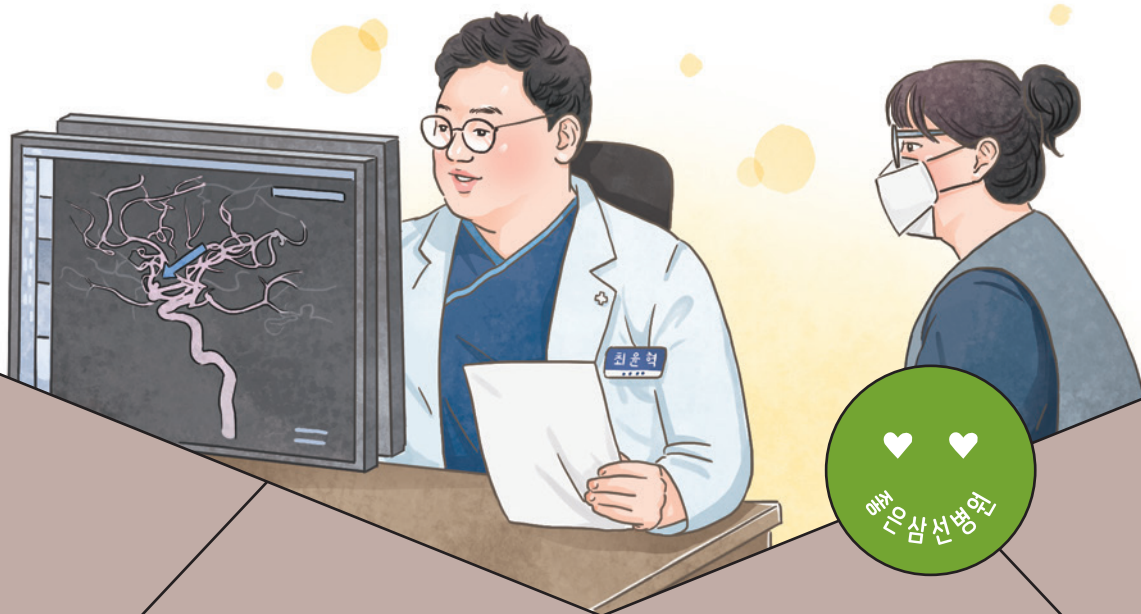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몸의 불편함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했지만, 최윤혁 과장님을 만난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단순히 환자의 증상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상처까지 함께 살피주시며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건네주신 따뜻한 격려의 말씀, 작은 몸짓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관심은 저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설 때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제 상황을 존중하며 공감해 주신 태도에서 '진정한 의사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과장님의 따뜻한 진료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외과 조용훈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인 불명으로 복통을 앓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CT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저나 교수님이나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서는 외래 진료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병실에 올라오셔서 제 상태를 살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 검사와 치료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장님의 관심과 정성 덕분에 통증이 잡혀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무팀 김귀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8월 12일에 아이를 출산한 김○○이라고합니다. 8월 11일부터 병원에 와서 진료를 봤었는데 김귀성 원무팀 직원분께서 설명도 명쾌하고 신속하고 빠르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덕분에 병원 입원하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갈 수 있었어요. 매번 병원 진료 볼때마다 뵈었는데 항상 한결같은 자세로 유쾌하게 접수, 수납, 서류 등 다 도와주셔서 감사했었는데 이제서야 마음을 전하네요. 감사했습니다!



정형외과 이완석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월 19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5번 압박골절과 갈비뼈,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좋은삼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완석 과장님을 만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언제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성실히 재활에 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함 짱! 세심함 짱!

뇌혈관센터 이영서 과장님~♥

아픈 저를 너무나 친절히 세심하게 편안히 대해주셨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안정감을 주셔서 편히 지내다 곧 퇴원합니다. 담당 간호사 이나리 외 간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10층에 올라와서 상처부위랑 환자상태 확인해주시고 모두들 따뜻한 배려 감사 드립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진정한 간호사, 11병동 김민경 간호사 선생님~♥

퇴원을 대기하던 환자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층 간호사들은 휴게실로 지체 없이 뛰어갔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탁자 위에 사탕 봉지를 발견한 김민경 간호사가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며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얼굴이 청색증이 오고 의식은 점점 더 소실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자 환자였기에 다섯 명의 간호사가 부축하여 하임리히를 여러 번 시행한 결과 사탕이 튕 하고 튀어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의료인이 라면 누구나 환자 살리는데 앞장서겠지만, 찰나의 순간에 사탕 먹은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처치를 한 김민경 간호사를 칭찬하고자 글을 씁니다. 김민경 간호사를 칭찬해주세요!

좋은병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잘했어

“깨끗함이 만드는 안심, 청결”

청결왕
인터뷰

좋은병원들(좋은문화·삼선·강안병원) ‘청결왕’들의 이야기

좋은문화병원



김도현(9병원)

좋은삼선병원



이선정(원무심사팀)

좋은강안병원



김인자(미화부)



저는 청결이 단순히 깨끗하게 치우는 차원을 넘어,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결을 ‘안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닥에 물기 하나 없어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먼지나 세균이 없어야 감염도 막을 수 있죠.



두 분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청결이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비나 사무실이 정리돼 있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환자분을 응대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죠.

맞아요. 청결은 환자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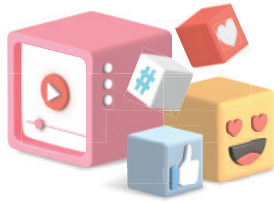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청소는 일부 직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함께 지켜가는 약속이다”라고요.
작은 쓰레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치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결은 잘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문화병원의 문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오늘도 더 친절하고, 더 청결하며, 더 절약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병원들이 다양한 건강정보로
여러분께 건강을 전해드립니다.



시험관 시술 반복착상실패 포기해야 할까?

🔍 **건강클래스**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 #반복착상실패 #시험관시술



유방암 치료 핵심 전략

🔍 **건강클래스** #좋은문화병원 #유방외과 #유방암치료 #1기유방암



걷는다고 다 운동일까? 진짜 운동은 따로 있다!

🔍 **건강클래스**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심혈관센터 #협심증 #심근경색



척추는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허리 건강 지키는 방법!

🔍 **건강클래스**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 #척추질환 #양방향척추내시경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을 지연시키는 게 최선이기엔 증상 나타나기 전 검사 받아야 합니다.

🔍 **건강클래스** #좋은강안병원 #안과센터 #녹내장 #시신경손상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

🔍 **건강강좌**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NEWS

좋은문화병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 심뇌혈관 건강, 일상 속 운동으로 지켜요!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7월 11일(금),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재활 치료팀 유미영 팀장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열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나누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좋은문화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시융합대학원 산학협력 MOU 체결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7월 30일(수), 15층 대강당에서 부산대학교 시융합대학원과 함께 시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좋은문화병원은 이미 시 진료지원 시스템, 로봇수술, 의료 영상 분석 등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절약위원회, 계단 이용 캠페인 진행

좋은문화병원 절약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목) 점심시간, 직원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계단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직원들에게는 시원한 음료수를 선물로 전달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다.

특히 좋은문화병원에는 하늘이 탁 트인 스카이라인 식당이 있어, 계단을 오르는 길이 곧 멋진 전망으로 이어진다. 직원들은 계단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전망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자장가 프로젝트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9월 한달간 예비 부모를 위한 특별한 태교 프로그램, 자장가 프로젝트 “두근두근, 너를 기다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부모가 직접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며 녹음까지 참여하는 과정으로, 가족만의 맞춤 음반을 제작하는 특별한 태교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음원은 각 가정에 전달되며, 이후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통해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NEWS

좋은삼선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수상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7월 4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정책으로, 좋은삼선병원은 2016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해 현재 9개 병동 376병상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중복 맞아 '사랑의 팔빙수 데이' 개최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7월 30일(수), 중복을 맞아 병원 로비에서 ‘사랑의 팔빙수 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을 위해 시원한 팔빙수를 정성껏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병원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팔빙수를 준비했다. 병원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교감하는 자리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입원 생활 중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몽골 우문고비 보건직원 연수단 방문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7월 30일(수), 8월 13일(수), 몽골 우문고비(Uvurkhangai)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2차례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병원 투어와 교육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스마트병원 운영, 환자 중심 서비스를 체험하고 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 의료진과 실무형 질의응답을 통해 몽골 보건의료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독일 지멘스사 최첨단 3.0T MRI 도입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8월 12일(화),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 3.0T MRI ‘마그네툼 루미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병원은 총 3대의 MRI를 보유하게 됐으며, 새 장비는 국내 최초 AI 위치 기반 시스템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고성능 모델이다. 또한 기존 장비보다 30% 넓은 70cm 입구와 173cm의 짧은 검사 터널을 갖춰 폐쇄공포증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NEWS

좋은강안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상위기관 2년 연속 선정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7월 25일(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2024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영어·러시아어 통역 코디네이터 배치와 다국어 안내 체계 등으로 외국인 환자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인정받았다. 또한 몽골 도르노고비 종합병원에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환자 초청해 나눈의료와 전문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의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허현 병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구급대응 응급처치 연수 마쳐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8월 27일(수)·28일(목), 부산시소방본부 구급대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응급환자 이송 시 전문 대응 능력 강화와 병원·소방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심·뇌혈관 및 외상 응급처치를 주제로 이영탁 응급의학과 과장, 이영서·허채욱 신경외과 과장, 이영민·이태근 순환기내과 과장이 강의에 참여했다. 현장 경험과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골든타임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방진영 교수, 정형외과 과장으로 초빙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9월 1일(월), 해운대백병원 방진영 교수를 정형외과 과장으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방 과장은 한양대 의대 졸업 후 건국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은 어깨·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다양한 어깨·팔꿈치 질환과 관절내시경, 인공관절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특화돼 있다. 병원은 방 과장 합류에 맞춰 관절센터 진료·수술·재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협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몽골 외상성 백내장 환자 수술 통해 의료 나눔 실현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9월 12일(금), 몽골 도르노고비 지역 환자에게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7월에 이뤄진 의료기술 교류·나눔 활동과 원격진료센터 개소의 첫 결실이다. 임재완 안과 과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했고, 몽골 현지 안과 전문의가 참관·연수하며 진료 및 수술 시스템을 공유했다. 좋은강안병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몽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NEWS

좋은병원들



좋은병원들, 2025년 여름 헌혈릴레이 진행

좋은병원들은 여름철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6~7월은 헌혈 참여율이 낮아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좋은병원들은 시기별 헌혈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좋은강안병원 김타현 자원봉사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공익 활동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좋은병원들, BIKY 어린이 체험행사에 의료지원

좋은병원들은 지난 7월 11일(금)~12일(토), 해운대 영화의전당 두레 라움광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의 체험형 프로그램 BIKY 놀이터 행사에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활동이 마련된 가족 중심의 축제로, 많은 어린이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 좋은병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을 파견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왔다.



좋은병원들, 핵심가치 컨퍼런스로 특강 진행

좋은병원들은 지난 8월 12일(화)~13일(수),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힘’을 주제로 ‘8월 핵심가치 컨퍼런스’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자는 힐리스닝의 이명진 대표이며 ‘Good leaders of Good hospitals’을 주제로 조직과 개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한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경청·소통 스킬을 소개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사례 중심의 참여형 소통을 이끌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좋은사랑요양병원, 필리핀 보건학과 학생 대상 장기요양제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좋은사랑요양병원이 지난 8월 1일(금), 필리핀 바타안페니솔라주립대학 공중보건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장기요양제도와 병원 운영 시스템을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일 은성의료재단에 따르면 이날 프로그램에는 필리핀 대학생 10명과 고신대학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2명, 고신대 교수 1명 등 총 13명이 참여해 병원 대강당에서 한국의 장기요양 제도와 진료 체계, 운영 철학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GOOD NEWS

GOOD HOSPITALS

2025.06.30

국제신문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역사
한 권에 담았네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의 모태는 1978년 구정희 정형외과와 문화숙 산부인과다. 지금은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 등 모두 12개의 네트워크 병원이 있다. 은성의료재단에 올하는 의미가 크다. 의료재단의 핵심인 좋은삼선병원이 개원 30주년, 좋은강안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망형 격인 좋은문화병원은 설립 47주년이다. 씬없이 달려왔기에 한 번쯤 반추해볼 시점. 이런 가운데 재단의 기록을 담은 책자가 나왔다.

GOOD SAMSUN HOSPITAL

2025.09.01

의계신문 MEDWORLD

비뇨의학과 이권경 과장
있다가 없다가 하는
우리아이 고환 정상 아니죠?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성장 시기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좋은삼선병원 비뇨의학과 이권경 과장은 “가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처럼, 발견 즉시 전문의를 찾아상담하는 것이 아이의 고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GOOD MOONHWA HOSPITAL

2025.09.01

부산일보

문화속 병원장, 아시아 태평양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좌장 및 연자로 초청



좋은문화병원은 문화속 병원장이 오는 4~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산부인과 내시경 및 최소침습수술학회(APAGE 2025)’의 가임력 보존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고 2일 밝혔다. APAGE 2025는 자궁·난소에 발생하는 산부인과적 종양의 최소침습적 치료에 대한 교육과 학술활동을 선도하는 국제 학회다

GOOD GANG-AN HOSPITAL

2025.08.25

부산일보

“부산서 치료” 결심 70대 환자,
다학제 협진으로 수차례 고비 넘겼다



좋은강안병원은 갑상선암, 담도암, 유방암, 간내담도암 등 여러 차례 암이 잇따라 발병한 70대 환자를 다학제 협진 시스템으로 치료하며 수차례 고비를 넘겼다. 소화기내과, 간담췌간이식외과, 유방외과, 혈액종양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진료를 통해 대학 병원 수준의 암 치료 역량을 입증했다. 윤성필 간담췌간이식외과 과장은 “전문 진료 인프라와 암센터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환자가 수년간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건강칼럼

좋은문화병원

- 6월 19일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 **한국의학신문**, **이뉴스투데이**, **스포츠조선**, **보건뉴스**, **뉴스경남**, **부산일보**, **헬스중앙**
- 7월 16일 소아청소년과 과장-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가슴 붓고? 성조숙증 치료는 이렇게 |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코리아헬스로그**, **뉴스경남**, **하이뉴스**, **스포츠조선**, **보건뉴스**, **한국의학신문**
- 8월 11일 여름철 식중독 방심은 금물 증상과 대응법 정확히 알아야 | **뉴스경남**, **스포츠경향**, **키즈맘**, **코리아헬스로그**,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8월 21일 불면증 방지 댄 만성화 가능성 | **키즈맘**, **뉴스경남**, **데일리스포츠한국**, **코리아헬스로그**, **한국의학신문**, **의계신문**
- 9월 9일 ‘성조숙증’ 최종 키에 약영향 미칠수도 | **국제신문**
- 9월 1일 “별초가 허리를 망친다”...추석 전 척추질환 주의보 | **하이뉴스** 등

좋은삼선병원

- 6월 12일 정형외과 이완석 과장-척추 건강에 경고등! 추천 판 탈출증, 어떻게 이겨낼까? | **로이슈**,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6월 24일 비뇨의학과 채종석 과장-물 한 잔으로 피하는 여름의 고풍, 요로결석!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기 | **보건뉴스**, **의계신문**, **이뉴스투데이**,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7월 14일 정형외과 은일수 센터장-여름 발걸음을 가볍게...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도·회복력 향상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8월 1일 정형외과 허태영 과장-여름철 무릎 건강 적신호! 조기치료를 관철명 잡고, 통증 심하면 인공관절 고려하세요.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8월 22일 척추센터 김종열 센터장-더 안전하고 빠른 회복, 디스크 치료 새 대안 ‘최소침습 척추수술’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9월 1일 비뇨의학과 이권경 과장-있다가 없다가 하는 우리아이 고환 정상 아니죠? | **의계신문**

좋은강안병원

- 6월 26일 내분비내과 남윤정 과장-7명 중 1명 당뇨병, 장마철 세심한 관리 필수 | **하이뉴스**, **후생신보**, **코리아헬스로그**, **키즈맘**
- 7월 1일 이비인후과 홍종철 과장-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분이 가라앉았다면 칼슘 탓? | **부산일보**
- 7월 27일 직업환경의학과 김중은 센터장-경제적 효과 선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 | **국제신문**
- 7월 29일 혈액종양내과 정주삼 센터장-백혈병 비운의 불치병? 조혈모세포이식 등으로 완치 가능합니다 | **국제신문**
- 8월 1일 발달의학센터-아이가 또래와 놀지 못하거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 **부산일보**, **코리아헬스로그**, **하이뉴스**
- 8월 26일 신경외과 전상호 소장-From Text Neck to Chronic Pain: Good Gang-an Hospital's Guide to Spine Health | **hops magazine korea**



좋은문화병원

KNN

닥터스



7월 1일(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
림프부종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KNN

건강튜브



7월 17일(목)

비중격만곡증
이비인후과 최병권 과장

좋은삼성병원

KNN

건강365



8월 8일(금)

5분도 못 걷고 등 굽는
'척추관협착증'
정형외과 이완석 과장



8월 14일(목)

더 오래가고 튼튼한 인공관절,
로봇이 힘 보태면?
정형외과 김창완 부장

KNN

닥터스



8월 26일(화)

다시 걷는 기적, 척추 통증 완정 정복!
척추센터
김종열·최윤희·이완석 과장

좋은강안병원

KNN

건강365



7월 17일(목)

척추관 협착증
신경외과 이영현 과장



7월 23일(수)

유방암 수술과 재건
유방외과 김윤경 과장

KNN

건강튜브



8월 28일(목)

허혈성 뇌졸중
신경외과 허재욱 과장

KNN

공개클리닉 헬



9월 6일(토)

유방암 제대로 극복하는 법
유방외과 변장무 과장



라디오

좋은문화병원

TBN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7월 28일(월)

여름철 건강 관리 (식중독)
소화기내과 여승현 과장



9월 29일(월)

홍통 바로 알기
순환기내과 서정민 과장

좋은삼성병원

KBS

부산의 오늘



7월 2일(수)

척추는 치료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8월 11일(월)

발끝에서 시작된 고통, 족저근막염
정형외과 허태영 과장

KBS

부산의 오늘



9월 24일(수)

뇌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멈춘다!
혈전 제거술의 모든 것!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좋은강안병원

KNN

웰빙라이프



7월 28일(월) ~ 8월 1일(금)

담석증, 장염 위/대장내시경
소화기내과 고민석 과장



8월 18일(월)

여름철 심혈관 질환 예방
순환기내과 이태근 과장



신문

좋은병원들

- 7월 1일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 **뉴스시외**
- 7월 2일 좋은병원들 4곳,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 **경상일보 외**
- 7월 6일 중증질환-암 치료 가능한 2.5차 병원, 의료 본업에서 확장성 찾아 | **히트뉴스**
- 7월 12일 좋은병원들, BIKY 어린이 체험행사에 의료지원 | **베이비뉴스 | 보건뉴스**
- 7월 25일 좋은병원들, 세계 간염의 날 기념 건강 캠페인 진행 | **의학신문**
- 8월 4일 좋은사랑요양병원, 필리핀 보건학과 학생 대상 장기요양제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하이뉴스 외**
- 8월 7일 좋은선린병원, 차세대 EMR 시스템 도입 | **의학신문**
- 8월 27일 좋은병원들, 2025 정책외과 심포지엄 개최 | **하이뉴스 외**
- 9월 5일 좋은병원들, 주부산리시이총영사관과 의료지원 협약 | **부산일보**
- 9월 13일 좋은병원들, 제2회 좋은병원들 척추전퍼런스 개최 | **보건뉴스 외**

좋은문화병원

- 6월 23일 림프부종 치료 '바이오프릿지 초미세수술' 국내 첫 100회 달성 | **국제신문, 부산일보, 하이뉴스 외**
- 6월 25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 후원금 전달 | **의학신문 외**
- 7월 1일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림프부종 건강강화 | **의학신문**
- 7월 2일 부산진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시민일보 외**
- 7월 7일 개원 47주년 기념식 개최 | **뉴스시외, 보건뉴스 외**
- 7월 14일 환자안전개선사례 공모전 '금상' | **의학신문 외**
- 7월 25일 본원 탄생아 초청 견학 행사 | **CNN뉴스 외**
- 9월 1일 척추센터 손상규 소장, 제29차 무릎경 척추내시경 연구학회서 라이브 서저리 | **보건뉴스 외**
- 9월 2일 문화속 병원장, 아시아 태평양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좌장 및 연자로 초청 | **국제신문, 부산일보 외**

좋은삼성병원

- 6월 12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멘토기관' 위촉 | **보건뉴스 외**
- 6월 23일 은일수 센터장, 족부족관절 수가 개선 방향 제시 | **의학신문, 한국의학신문**
- 7월 4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 **국제신문 외**
- 7월 10일 제5기 환자안전지킴이 해단식 및 제6기 발대식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8월 12일 독일 지멘스사 초청단 3.0T MRI 도입 | **보건뉴스 외**
- 8월 13일 몽골 의료진 2차 연수단 맞이...보건의료 협력 확대 | **의학신문, 하이뉴스, 한국의학신문**
- 8월 26일 개원 30주년 기념 2025 정책외과 심포지엄 개최 | **보건뉴스, 부산일보, 의계신문, 의학신문 외**
- 9월 8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OLIF 두가지 접근법 비교 분석 |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좋은강안병원

- 7월 29일 외국인환자 유치 상위기관 2년 연속 선정 | **보건뉴스, 하이뉴스, 아이뉴스24**
- 8월 5일 몽골서 의료기술 교류·나눔 | **국제신문, 의학신문**
- 8월 25일 '부산서 치료' 결산 70대 환자, 다학제 협진으로 수차례 고비 넘겼다 | **부산일보, 국제신문 외**
- 8월 28일 유방암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하이뉴스, 바이오타임즈, 뉴스경남, 아이뉴스24 외**
- 8월 29일 부산 구급대원 응급처치 연수 마쳐 | **하이뉴스, 보건뉴스, 로이뉴스, 의학신문**
- 9월 1일 방진영 정형외과 과장 초빙 | **부산일보, 로이뉴스, 병원신문, 아이뉴스24**
- 9월 22일 몽골 백내장 환자 초청 '의료 나눔' | **부산일보 외**


www.moonhwa.or.kr | 부산 (051)644-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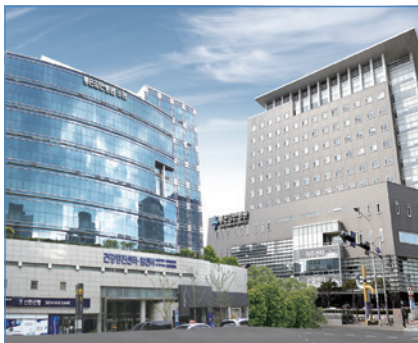
진료과목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유방외과, 갑상선외과, 위장관외과 (간·담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부인과내시경수술/자궁근종/산과/난임),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부인과내시경 수술센터, 자궁근종센터, 부인암센터, 산과센터, 자연주의 출산센터, 난임센터, 여성 생식기관 선천기형센터, 청소년기 부인과 질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센터, 소화기 내시경센터, 인공신장센터, 유방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피부미용성형 센터, 건강증진센터, 로봇수술센터, 소아외과&탈장클리닉


www.samsun.or.kr | 부산 (051)322-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클리닉 소개 로봇인공관절센터, 인공관절센터, 어깨관절·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운동치료센터, 척추 센터,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 간담체센터, 인공신장센터, 혈관수술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좋은기억력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www.gang-an.or.kr | 부산 (051)625-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중앙혈액내과, 외과(간담체간이식외과 대장항문외과/갑상선내분비외과), 혈관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정신 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유방센터, 안과센터, 갑상선두경부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심장센터, 관절 센터, 척추센터, 뇌혈관센터, 혈관센터, 외과센터, 간담체간이식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특수운동 치료센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센터, 발달의학센터, PET-CT센터


www.sam-jeong.or.kr | 울산 (052)220-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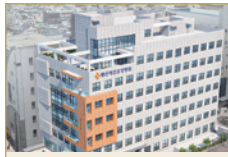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심혈관센터, 척추 및 관절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인공신장센터 소화기 및 내시경센터, 비뇨기수술센터, 영상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www.goodsunlin.or.kr | 포항 (054)245-50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직업환경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척추 및 관절센터, 암센터, 화상·창상진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혈액투석 센터 위·대장 내시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당뇨 및 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www.aein.or.kr
부산 (051)520-7700

좋은애인요양병원 GOOD AEI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노인학과, 한방
내과, 가정의학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연하(삼킴기능)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한방요법실 재활·호스피스병동, 중증환자집중치료실



www.yeonin.or.kr
밀양 (055)350-9988

좋은연인요양병원 GOOD YEONI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암 재활 전인 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한방요법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온열
치료



www.busanhp.com
부산 (051)326-0900

좋은부산요양병원 GOOD BUSA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노인학과
부인과, 한방과
뇌손상재활치료센터, 암재활면역치료센터, 작업·연하·
통증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호스피스실,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물리치료실



www.riverview.or.kr
부산 (051)995-0900

좋은리버뷰요양병원 GOOD RIVERVIEW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한방과
방사선종양학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
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실, 집중치료실
햇살공원, 옥외공원



www.goodjurye.or.kr
부산 (051)325-0300

좋은주례요양병원 GOOD JURYE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물리치료실, 호스피스실(말기암)
사회복지프로그램실, 하늘공원, 야외센터



www.sunlinrmh.co.kr
포항 (054)245-6060

좋은선린요양병원 GOOD SUNLIN MEDICAL CARE HOSPITAL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방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통증치료실, 연하재활치료실, 소아
재활치료실)



www.goodsarang.kr
부산 (051)220-7000

좋은사랑요양병원 GOOD SARANG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운동재활치료, 작업재활치료, 통증재활치료, 연하
재활치료), 야외센터, 한방요법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병원보를 더욱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구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QR코드스캔하고
설문 참여하기



독자 퀴즈



이번호 퀴즈

○○○은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며,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점차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지나호

정답 & 정답자

양방향내시경

김○주 부산진구 중앙대로
나○수 금정구 중앙대로
조○하 남구 유엔로
최○진 사상구 가야대로
하○정 수영구 좌수영로

응모 요령

좋은병원들 홈페이지
(www.goodhospital.or.kr)
웹진 독자퀴즈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정답자(5명)를 추첨하여
신세계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원고 모집

좋은병원들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필, 시, 칭찬사례, 감동적인 이야기,
경험담 등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좋은병원들 편집실

TEL. (051) 310-9419
FAX. (051) 316-9295

이비인후과

✓ 만성질환, 축농증과 이별

- 축농증 수술
- 부비동염(축농증) 수술
- 비염 수술, 편도 수술
- 비중격 만곡증 수술
- 난청, 이명, 어지러움



이비인후과
최병권
과장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T. 051)644-2002

비뇨의학과

- ✓ 비뇨의학과 전문의(2인 진료체제)
- ✓ 여성·소아 비뇨기질환 진료

-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 전립선질환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전립선암, 배뇨장애
- 여성배뇨장애
방광염, 과민성방광 요실금, 배뇨통
- 요로감염, 음낭수종, 정계정맥류, 혈뇨
- 소아 비뇨기질환

비뇨의학과
채종석
과장



비뇨의학과
이권경
과장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T. 051)322-0900

관절센터

- ✓ 관절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 ✓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 ✓ 관절 질환의 재활적 치료

- 무릎 관절, 고관절, 어깨관절, 족관절 및 족부
- 스포츠의학,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 인공관절 수술(무릎, 고관절, 어깨)
- 관절내시경 수술(무릎, 어깨) 골반기형 및 손상

정형외과
허현
병원장

정형외과
방진영
과장

정형외과
최장규
과장

정형외과
강승우
과장



T. 051)625-0900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 폐렴, 폐결절, 결핵
- 만성폐쇄성폐질환
- 간질성 폐질환
- 기관지천식
- 기관지확장증
- 기타 호흡기질환

호흡기내과
나인균
센터장

호흡기내과
이규민
과장



T. 052)220-7500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앞서나가는



좋은병원들
GOOD HOSPITALS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좋은삼정병원**
 GOOD SAMJEONG HOSPITAL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포괄 2차 종합병원]입니다.**

